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

권 정 혜[†]

채 규 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Snyder(1979)의 결혼 만족도 검사(MSI)를 한국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고, 두 번의 예비검사를 거쳐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MSI)에는 타당도를 재는 2개 척도(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와 결혼 만족도를 재는 12개 척도, 총 14개 하위 척도가 있다(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공격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 양육 갈등 척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는 원검사에는 없던 척도로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결혼 만족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보아 새로이 제작하여 포함시켰다. K-MSI의 표준화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남자 440명, 기혼 여자 540명에게 K-MS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1~.92로 나왔으며, 이 중 30명의 피검자에게 2주간 간격으로 K-MSI를 실시하여 .70~.96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또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성, 연령, 학력, 가계수입, 직업이 K-MSI의 각 하위 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K-MSI를 요인분석한 결과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변량의 43.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혼 만족도는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30년대에서부터 일찍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Burgess와 Locke(1945)은 결혼 만족도를 ‘한

*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자유공모과제)의 지원에 따라 연구되었음. 본 연구에 연구조교로 참여하여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을 도와준 임승락, 이해경, 송시내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 정 혜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1 136-701 /

Fax : (02)928-9203 / E-mail : junghye@kucn.ac.kr

개인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서 불만족하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Hawkins와 James(1968)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했다(이인수 · 유영주, 1986에서 재인용).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은 결혼 만족도를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결혼 만족도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으며, 결혼행복도, 결혼적응도, 결혼성공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졌다.

Terman(1938)의 연구는 결혼 만족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1,000쌍의 이혼한 부부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1,000쌍의 부부들을 비교해서 결혼 만족도와 상관성이 있는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기초해 이후 많은 결혼 만족도 척도가 개발되었다(예: Burgess와 Cottrell의 Marital Adjustment Form, Terman의 Marital Happiness Index, Locke와 Wallace의 Short Marital Adjustment Test, Snyder, 1979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Locke와 Wallace(1959)가 기존 척도의 문항들을 정리해 15개의 짧은 문항으로 만든 결혼 적응 척도(Marital Adjustment Scale)는 사용이 간편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Spanier(1976)는 결혼적응에 대한 조작적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을 토대로 문항을 선정해 의견 일치도, 응집력, 관계만족도, 애정표현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부부관계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결혼 적응도를 평가하고 부적응집단을 변별하는데 그 효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민식과 김중술(1995)에 의해 번역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로서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제작한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가 있는데, 이 검사에서는 결혼 만족도를 부부관계에 대한 호감도라는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우리 나라에도 이인

수와 유영주(1986)에 의해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면서 1970년대 이후부터 부부관계에 관한 다각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결혼 만족도에 대한 설명 변량을 높여 나갔다. 최근에는 부부들을 결혼 전부터 추수 연구하여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 있으며, 부부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부관계의 적응도와 배우자의 정신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부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가정관리학 등 관련분야에서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종래 인구통계학적 변인 위주의 조사방법 연구에서 벗어나 성역할 태도, 성격변인, 가치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까지로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깊이 이해하기에는 연구 수가 부족하며, 연구 방법론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서 흔히 지적되는 문제는 개념과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특히 결혼 만족도나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정확한 개념 정의 없이 혼용되고 있어 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더디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 만족도는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신념, 인상 등을 나타내며(Roach, Frazier, & Bowden, 1981; Snyder, 1979), 분석의 단위는 개인의 지각이다. 한편 결혼 적응도는 조화로운 결혼관계를 이룰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Spanier, 1976), 분석의 단위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에서나 검사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결혼 만족도와 결혼 적응도를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한 예로 Spanier(1972)는 부부적응을 재는 Locke와 Wallace의 부부적응척도(MAT)에서 남편과 부인의 검사점수 결과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결혼 만족도를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차원으로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혼 만족도의 측정에서 늘 논란이 되어왔다. 이 분야의 이론적 연구의 효시인 Burgess와 Cottrell(1939)은 처음 결혼 성공도를 일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Burgess와 Wallin(1953)은 후에 결혼관계의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해 하위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정현숙, 199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결혼 만족도 검사가 개발된 초기에서부터 결혼 만족도를 단일차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차원으로 볼 것인지가 측정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대체로 1970년대 이전에는 결혼 만족도를 전반적이고 단일한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 더 우세했으며, Terman(1939)의 결혼행복도 검사나 Locke(1951)의 결혼 만족도 검사가 전형적인 예이다(정현숙, 1997에서 재인용).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Roach와 그 동료들의 결혼 만족도 검사(MSS)나 Schumm, Nicles, Schectman, Grigsby(1987)의 캔사스 결혼 만족도 검사(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에서도 결혼 만족도를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결혼 생활의 질을 하나의 점수로 단순화하여 수량화해준다는 이점이 있으나, 결혼 생활의 복잡한 현상을 평가하고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결혼 생활을 다차원으로 개념화하고, 다차원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정, 경제적 문제, 성관계,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등 특수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활발해져 부부 만족도를 다차원으로 개념화하는데 대한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결혼 만족도를 다차원으로 개념화한 검사로는 앞에서 언급한 Spanier(1976)의 부부관계 적응척도, Snyder(1979)의 결혼 만족도 검사 등이 있다. 다차원검사를 사용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임상에서 결혼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검사에서 결혼 만족도를 서로 다른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문제나, 경험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요인이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앞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우리 나라에서 더욱 심각하다. 한 예로 부부관계 적응 척도(DAS)를 우리 나라 부부들에게 실시했을 때 Spanier(1976)가 제안한 것과는 다른 요인구조가 나타나(김득성, 1986; Ro & Kwon, 1997; 이민식 · 김중술, 1995), 우리 나라 문화에서 적응적 부부관계의 구조가 미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각 하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남편과 부인에게서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 검사를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다(노은여 · 권정혜, 1997). 한편 Roach와 그 동료들이 단일차원 검사라고 가정한 결혼 만족도(MSS)검사도 우리 나라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인수 · 유영주, 1986). 앞으로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가 단일차원인지, 다차원인지, 만일 다차원이라면 어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만족도를 각기 다른 하위 척도로 구성한 검사를 사용하여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Snyder(1979)가 다차원척도로 개발한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번역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한국판 결혼 생활 만족도 검사의 문항을 선정하고, 최종 문항들을 우리 나라 부부들에게 실시하여 반분 신뢰도, 일치도 계수 등을 알아보고,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또한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총 980명의 기혼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피검자들은 남자 440명(44.9%), 여자 540명(55.1%), 총 980명 이었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구 및 절차

Snyder(1979)에 의해 개발된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는 진위형으로 응답하는 총280문항의 검사로서 1개의 타당도 척도와 1개의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9개의 결혼 생활 특수영역에서의 만족을 재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nyder(1997)는 최근 타당도 척도인 비밀관성 척도와

공격행동 척도를 첨가하고 150문항으로 축소하여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판(Snyder, 1997)의 장점과 문항을 최대한 살리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판 결혼 생활 만족도 검사(K-MSI)를 개발하기 위해 두 번의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1차 문항분석 과정

1차 문항분석 과정에서는 MSI의 280문항과 MSI-R의 공격행동 척도(10문항)를 영어와 우리말에 능통한 임상 심리 전문가인 저자 두 명이 번역하였으며

표 1
표준화 연구에 포함된 피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 자				여 자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나이	20대	81	19.0	나이	20대	131	25.0
	30대	165	38.6		30대	135	25.8
	40대	100	23.4		40대	185	35.3
	50대	74	17.3		50대	71	13.5
	60대	7	1.6		60대	2	0.4
학력	무 학	3	0.7	학력	무 학	2	0.4
	초 졸	6	1.4		초 졸	10	1.9
	중 졸	6	1.4		중 졸	28	5.3
	고 졸	169	38.7		고 졸	205	38.6
	대 졸	202	46.2		대 졸	264	49.7
	대학원졸	51	11.7		대학원졸	22	4.1
월평균 가계수입	100만원이하	43	10.9	월평균 가계수입	100만원이하	32	7.1
	100만원~200만원	216	54.5		100만원~200만원	193	42.7
	200만원~300만원	88	22.2		200만원~300만원	133	29.4
	300만원 이상	49	12.4		300만원 이상	94	20.8
직업	무 직	8	1.9	직업	가정주부	313	59
	생산직, 단순 노동직	24	5.7		생산직, 단순 노동직	8	1.5
	상업서비스, 숙련기술직	106	25.1		상업서비스, 숙련기술직	45	8.5
	일반사무직	170	40.2		일반사무직	87	16.4
	관리직	21	5.0		관리직	3	.6
	전문직	62	14.7		전문직	47	8.9
	기 타	32	7.6		기 타	28	5.3
결혼상태	초 혼	431	99.1	결혼상태	초 혼	525	99.4
	재혼(2회 이상)	4	0.9		재혼(2회 이상)	3	0.6

이점이 있는 경우 토의를 거쳐 예비문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에서 제작한 공격행동 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격행동과 관련된 여덟 문항을 새로이 제작하여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고부 관계를 위시하여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보고서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새롭게 20문항을 제작하여 1차 예비조사에 포함시켰다(김충미, 1992; 정해정·서경숙, 1993)

1차 예비조사에는 총 318문항으로 검사를 구성하고,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가족 및 친지 등 196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과정에서 문항-총점간 상관이 .40이상인 문항과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평균 반응률이 .25에서 .75인 문항을 선정했다(Nunnally, 1994). 또한 MSI-R에 포함된 문항 중 1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총점간 상관이 낮은 경우에는 문항의 해석을 약간 수정하여 가능하면 문항을 살리려고 하였다(예, 내 배우자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일을 자주 한다. →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를 속상하게 한다).

그 결과 선정된 문항은 총 208문항으로서 관습적 반응 척도 13문항, 전반적 불만족 척도 23문항,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는 17문항,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는 24문항, 공격행동 척도는 10문항, 공유 시간 갈등 척도는 13문항, 경제적 갈등 척도는 14문항, 성적 불만족 척도는 17문항,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는 16문항, 원가족 문제 척도는 12문항,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는 13문항, 자녀 불만족 척도는 13문항, 자녀 양육 갈등 척도는 13문항이 선정되었다.

2차 문항분석 과정

2차 문항분석은 1차 문항분석에서 선정된 208문항을 기혼자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항 선정 기준은 1차 문항분석과 동일하였으며, MSI-R에 포함된 문항이라도 문항-총점간 상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두 차례의 문항분석의 결과로 최종 160문항이 선정되었으며 MSI-R에는 포함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문항-총점간 상관이 높지 않아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MSI)에서 제외된 문항은 총 아홉 문항이었다. 이 문항들은 원가족 문제 척도에서 세 문항, 자녀 불만족 척도에서 네 문항, 자녀 양육 갈등 척도에서 한 문항과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에서 세 문항이었으며, 대체로 우리 나라 실정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문항들이었다.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각 하위 척도 내용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는 총 1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두 척도는 검사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비밀관성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이며, 나머지 12개 척도는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1개 척도와 결혼 생활 각 영역에서의 불만족을 측정하는 11개의 척도이다. 각 하위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밀관적 반응 척도(INC): 9개의 하위 척도에서 유사한 응답이 기대되는 20쌍의 문항을 뽑아 본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반응 경향성은 검사 작성시 응답자가 부주의하게 응답한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에 포함되는 문항의 쌍에는 ‘내 배우자는 나를 때린 적이 있다’와 ‘내 배우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를 밀치거나 먹살을 잡은 적이 없다’,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결혼 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낀다’ 등이 있다.

2. 관습적 반응 척도(CNV): 이 척도는 응답자가 자신의 부부 관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왜곡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부부 관계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부인하거나 부부 관계를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여 기술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를 속상하게 한다’ ‘내 배우자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등이 있다.

3.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 이혼이나 별거 등 부

표 2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 하위척도

K-MSI(한국)	MSI-R(미국)	척도 약호	문항수
비일관적 반응 척도	Inconsistency	INC	20
관습적 반응 척도	Conventionalization	CNV	10
전반적 불만족 척도	Global Distress	GDS	22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Affective Communication	AFC	13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PSC	19
공격 행동 척도	Aggression	AGG	10
공유시간 갈등 척도	Time Together	TTO	10
경제적 갈등 척도	Disagreement About Finances	FIN	11
성적 불만족 척도	Sexual Dissatisfaction	SEX	13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Role Orientation	ROR	12
원가족 문제 척도	Family History Of Distress	FAM	9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Conflict With In-Laws	CIL	10
자녀 불만족 척도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DSC	11
자녀 양육 갈등 척도	Conflict Over Child Rearing	CCR	10

부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기술한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등이 있다.

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AFC): 배우자의 애정이나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인 이해와 공감에 대해 기술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 배우자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5.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PSC): 배우자와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내는지 여부를 기술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에는 ‘배우자와의 사소한 의견차이가 종종 큰 논쟁으로 발전한다’, ‘우리는 논쟁할 때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같다’ 등이 있다.

6. 공격행동 척도(AGG): 배우자의 언어적 공격, 신

체적 공격과 응답자가 느끼는 배우자의 공격에 대한 위협을 기술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내 배우자는 나를 때린 적이 있다’, ‘내 배우자는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7. 공유시간 갈등 척도(TTO):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활동이 있는지, 공유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기술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내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내 배우자는 나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있다.

8. 경제적 갈등 척도(FIN):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걱정, 배우자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을 기술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우리는 돈 문제로 거의 싸우지 않는다’, ‘내 배우자는 가정경제를 잘 운영한다’ 등의 문항이 있다.

9. 성적 불만족 척도(SEX): 성생활에 대한 만족, 성관계에 대한 배우자의 흥미, 성관계 중의 배우자의 감

정 표현을 기술하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우리의 성생활은 매우 만족스럽다', '내 배우자는 때때로 성에 대한 열정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등이 있다.

10.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ROR): 가사 돌보기,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가족 내의 의사결정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공평성, 직업에 대한 기회와 중요성에 대한 형평성을 기술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으로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내의 직업과 남편의 직업은 똑같이 중요하다' 등이 있다.

11. 원가족 문제 척도(FAM): 원가족 내의 갈등이나 문제, 불행한 어린 시절, 불행한 부모의 결혼 생활을 기술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의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12.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CIL): 상대 배우자가 응답자의 부모에게 비현실적으로 잘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부부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 양식을 기술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응답자의 부부 갈등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에는 '내 배우자는 자기 부모님께 지나치게 잘 하기를 바란다', '나는 배우자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13. 자녀 불만족 척도(DSC): 자녀의 적응에 대한 염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족과 갈등을 기술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내 아이들은 내 감정에 대해 무관심하다', '우리 아이들은 집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성실하다' 등이 있다.

14. 자녀 양육 갈등 척도(CCR):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감 부족,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훈육 방식에 대한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기술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우리는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결정한다', '내 배우자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결과 및 논의

신뢰도

내적 일치도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MSI)의 각 하위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3과 같으며 미국 연구에서 산출된 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K-MSI 각 하위 척도들(INC제외)의 내적 일치도 계수의 범위는 .71~.92 였으며 평균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이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실시한 MSI-R의 하위 척도들(INC제외)의 내적 일치도 계수의 범위 .70~.93, 그리고 평균 내적 일치도 계수 .82와 유사한 수준이다. 새로 제작하여 K-MSI의 하위 척도로 포함시킨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도 .7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시간적 안정성

미국 연구의 경우 210명의 피검자(105쌍)를 대상으로 6주간의 간격으로 측정한 MSI-R의 각 하위 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4(GDS, FIN, CCR)에서 .88(ROR)까지로 높은 시간적 안정성을 나타냈다. 한편 본 연구에서 30명의 피검자(15쌍)를 대상으로 2주간 간격으로 측정한 K-MSI 각 하위 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0(ROR)~.96(GDS)까지로 높은 시간적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시간적 안정성 계수는 내적 일치도 계수와 함께 표 3에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

성 차

K-MSI의 하위 척도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갈등 척도와 원가족 문제 척

표 3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및 시간적 안정성 계수

척도	Cronbach α 계수		r_{tt}	
	K-MSI (한국)	MSI-R (미국)	K-MSI (한국)	MSI-R (미국)
비일관적 반응 척도	-	-	.49**	.52
관습적 반응 척도	.80	.83	.85***	.78
전반적불만족 척도	.92	.93	.96***	.74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82	.85	.90***	.79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84	.89	.78***	.82
공격행동 척도	.78	.81	.92***	.81
공유시간 갈등척도	.73	.80	.79***	.77
경제적 갈등 척도	.72	.79	.92***	.74
성적 불만족 척도	.79	.84	.90***	.81
관습적 성역할 척도	.71	.83	.70***	.88
원가족 문제 척도	.75	.78	.78***	.84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79	-	.90***	-
자녀 불만족 척도	.72	.70	.93***	.79
자녀 양육 갈등 척도	.73	.78	.89***	.74
	n=998	n=2,140	n=30 DSC, CCR: n=26	n=210 DSC, CCR: n=153

** $p < .01$. *** $p < .001$.

도, 자녀 불만족 척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하위 척도들에서 유의미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 생활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관습적 반응 척도와 성적 불만족 척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7.98, p<.001, t=2.50, p<.05$. 따라서 K-MSI의 하위 척도 대부분에 나타나는 유의미한 남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후 다른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과 하위 척도간의 분석은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서 따로 실시하였다.

연령

K-MSI의 하위 척도 점수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남성의 연령 집단별 K-MSI 하위 척도 분석 결과 성적 불만족 척도, $F(4, 413)=2.52, p<.05$,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F(4, 413)=10.48, p<.001$, 원가족 문제 척도, $F(4,409)=2.91, p<.05$, 자녀 불만족 척도, $F(4, 319)=4.67,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를 제외

표 4

남성과 여성의 하위 척도의 t 검증

	INC	CNV	GDS	AFC	PSC	AGG	TTO	FIN	SEX	ROR	FAM	CIL	DSC	CCR	
	비일관적 반응척도	관습적 반응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척도	공격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척도	경제적 갈등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	관습적 성역할 태도척도	원가족 문제척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양육 갈등척도	
남성 n=440	평균	5.90	4.24	4.98	4.67	8.22	2.59	4.33	3.43	4.06	5.03	3.26	2.04	3.15	3.22
	표준 편차	2.57	2.81	5.24	3.26	4.26	2.00	2.33	2.34	3.14	2.41	2.34	2.24	2.55	2.40
여성 n=540	평균	6.25	2.86	6.75	5.77	9.03	3.68	4.79	3.69	3.56	6.00	3.25	2.58	2.85	3.68
	표준 편차	2.68	2.53	5.82	3.54	4.71	2.76	2.64	2.64	3.00	2.62	2.44	2.56	2.44	2.66
<i>t</i>	-2.06*	7.98***	-4.88***	-5.86***	-2.76**	-6.91***	-2.83**	-1.60	2.50*	-5.94***	.07	-3.40***	1.61	-2.51*	
유의도	.040	.000	.000	.000	.006	.000	.005	.110	.013	.000	.947	.001	.107	.012	

주. 본 검증에 평균, 표준편차의 단위는 원점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남성 연령집단별 하위척도의 변량분석

	INC	CNV	GDS	AFC	PSC	AGG	TTO	FIN	SEX	ROR	FAM	CIL	DSC	CCR
	비일관적 반응척도	관습적 반응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척도	서적 의사소통 문제척도	결핵 공격행동 척도	해결 공유시간 갈등척도	경제적 갈등척도	성 불만족 척도	관습적 성역할 태도척도	원가족 문제척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양육 갈등척도
평균	5.67	4.43	4.08	3.62	7.48	2.42	3.80	3.30	3.40	6.01	2.78	1.94	2.62	2.81
① 20대 표준 편차	2.48	2.73	4.66	2.77	4.32	1.54	2.15	2.53	2.84	2.51	2.14	1.98	2.54	2.24
평균	6.21	3.99	5.27	4.59	8.20	2.68	4.34	3.63	3.91	5.46	3.31	2.31	2.53	3.25
② 30대 표준 편차	2.86	2.72	5.33	3.21	4.18	2.05	2.47	2.27	2.94	2.34	2.45	2.45	2.25	2.59
평균	5.95	4.22	5.28	4.94	8.76	2.58	4.70	3.62	4.33	4.34	3.75	1.80	3.26	3.47
③ 40대 표준 편차	2.52	2.75	5.53	3.63	4.17	1.92	2.32	2.36	3.34	2.35	2.25	2.05	2.65	2.38
평균	5.61	4.54	4.96	4.66	8.54	2.43	4.31	3.21	4.80	4.14	3.24	2.00	4.01	2.94
④ 50대 표준 편차	2.11	3.14	5.22	3.14	4.35	2.34	2.27	2.32	3.37	2.03	2.32	2.28	2.72	2.19
평균	4.43	5.57	2.57	3.71	6.14	3.33	4.57	1.57	2.71	3.57	1.57	.71	4.14	3.29
⑤ 60대 표준 편차	1.51	2.76	3.55	3.30	4.10	3.33	.98	1.13	2.21	1.72	1.40	.95	1.57	2.14
F	1.57	1.00	1.17	2.14	1.53	.55	1.69	1.78	2.52*	10.48***	2.91*	1.55	4.67***	.73
유의도	.183	.406	.322	.075	.193	.698	.152	.132	.040	.000	.021	.186	.001	.575
Tukey 사후검증					③>①				④>①	①>④ ②>③ ②>④	③>①		④>②	

주. 본 검중에 평균, 표준편차의 단위는 원점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한 나머지 세 척도에서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불만족의 수준이 높았다. 한편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반영하므로 나이가 적을수록 더욱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 집단별 K-MSI 하위 척도 분석 결과 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사후검증 결과 성역할 태도 척도를 제외한 척도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불만족의 수준이 높았으며,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연령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은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불만족의 수준이 높은 반면, 남성은 비교적 적은 영역에서 연령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단 성역할 태도에서는 남녀 모두 나이가 적을수록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여성 연령집단별 하위척도의 변량분석

	INC	CNV	GDS	AFC	PSC	AGG	TTO	FIN	SEX	ROR	FAM	CIL	DSC	CCR
	비밀관적 반응척도	관습적 반응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척도	공격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척도	경제적 갈등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	관습적 성역할 태도척도	원가족 문제척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양육 갈등척도
평균	6.06	3.05	5.92	4.69	8.13	3.11	4.04	3.23	2.86	7.13	3.01	2.12	2.00	3.32
① 20대 표준 편차	2.85	2.73	5.34	3.27	4.45	2.53	2.54	2.40	2.56	2.78	2.51	2.39	2.40	2.68
평균	6.43	2.75	6.35	5.50	8.35	3.33	4.82	3.59	3.29	6.68	3.20	2.45	2.28	3.15
② 30대 표준 편차	2.52	2.35	5.22	3.23	4.20	2.68	2.61	2.35	2.74	2.44	2.30	2.54	1.80	2.46
평균	6.28	2.80	7.29	6.49	9.61	4.07	5.15	3.86	3.87	5.26	3.56	2.88	3.29	4.08
③ 40대 표준 편차	2.73	2.56	6.31	3.67	5.11	2.82	2.63	2.85	3.29	2.34	2.55	2.62	2.72	2.89
평균	6.28	2.97	7.82	6.39	10.40	4.19	5.35	4.30	4.56	4.71	2.96	2.90	3.15	3.89
④ 50대 표준 편차	2.64	2.52	6.22	3.61	4.65	2.87	2.54	2.88	3.19	2.16	2.18	2.71	2.42	2.20
평균	5.00	.50	16.00	12.00	15.50	6.50	9.00	7.00	7.50	5.50	5.50	4.00	1.50	6.00
⑤ 60대 표준 편차	1.41	.71	4.24	.00	.71	4.95	.00	.00	3.54	4.95	3.54	.00	.71	4.24
F	.43	.73	3.02*	7.51***	4.96***	4.09*	5.71***	2.98*	5.30***	18.09***	1.73	2.22	4.72***	2.90*
유의도	.790	.571	.018	.000	.001	.003	.000	.019	.000	.000	.141	.065	.001	.022
Tukey 사후검증				③>① ④>① ⑤>①	③>① ④>① ④>②		③>① ④>①		③>① ④>① ④>②	①>③ ①>④ ②>③ ②>④			③>① ③>②	③>②

주. 본 검중에 평균, 표준편차의 단위는 원점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학 력

K-MSI의 하위 척도 점수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학력에 따른 집단별 K-MSI 하위 척도 분석 결과에서 공격행동 척도,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 척도에서 다음과 같이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 비밀관적 반응 척도, $F(3, 433)=5.24, p<.001$; (b) 관습적 반응 척도, $F(3, 427)=4.98, p<.01$;

(c) 전반적 불만족 척도, $F(3,417)=10.66, p<.001$; (d)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F(3,425)=9.11, p<.001$; (e)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F(3,423)=5.82, p<.001$; (f) 공유시간 갈등 척도, $F(3,426)=6.01, p<.001$; (g) 경제적 갈등 척도, $F(3,428)=12.09, p<.001$; (h) 성적 불만족 척도, $F(3,424)=6.05, p<.001$; (i) 원가족 문제 척도, $F(3,420)=7.88, p<.001$; (j)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F(3, 420)=3.90, p<.05$; (k) 자녀 불만족 척도, $F(3,328)=2.58, p<.05$; (l) 자녀 양육 갈등 척도,

$F(3,331)=6.12, p<.001$). Tukey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관습적 반응 척도만이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려는 경향성과 학력 수준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 외 모든 척도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불만족의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특징은 고졸과 대졸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학력에 따른 집단별 K-MSI 하위 척도 분석 결과에서는 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 양육 갈등 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 척도에서 다음과 같이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 전반적 불만족 척도, $F(3,507)=6.33, p<.001$; (b)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F(3,516)=7.88, p<.001$; (c)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F(3,510)=4.58, p<.05$; (d) 공격행동 척도, $F(3,524)=6.64, p<.001$; (e) 공유시간 갈등 척도, $F(3,517)=5.64, p<.001$; (f) 경제적 갈등 척도, $F(3,520)=9.76, p<.001$; (g) 성적 불만족 척도, $F(3,509)=3.96, p<.05$; (h)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F(3,517)=13.18, p<.001$; (i) 원가족 문제 척도, $F(3,516)=7.26, p<.001$; (j)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F(3,516)=5.30, p<.001$; (k) 자녀 불만족 척도, $F(3,405)=3.39, p<.05$.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결혼 생활의 영역에서 불만족의 수준이 높았으며, 더 높은 수준의 관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에서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남성과 다른 결과이다.

가계수입

가계수입에 따라서 K-MSI의 각 하위 척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Tukey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K-MSI 하위 척도 중 경제적 갈등 척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388)=8.81, p<.001$,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가계수입이 낮을수록 불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갈등 척도, $F(3, 440)=16.81, p<.001$, 전반적 불만족 척도, $F(3, 428)=5.34, p<.001$, 공유시간 갈등 척도, $F(3, 438)=3.25, p<.05$, 원가족 문제 척도, $F(3, 437)=6.81,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위 척도 모두에서 가계수입이 낮을수록 불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업

직업에 따라서 K-MSI의 하위 척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직업별 K-MSI 하위 척도 중 공격행동 척도, $F(6, 411)=2.39, p<.05$, 경제적 갈등 척도, $F(6, 412)=2.97, p<.01$, 자녀 양육 갈등 척도, $F(6, 317)=2.55, p<.05$, 에서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Tukey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각 하위 척도에서 직업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직업별 K-MSI 하위 척도 분석 결과 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 척도에서 다음과 같이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 전반적 불만족 척도, $F(6, 505)=4.36, p<.001$; (b)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F(6, 514)=3.91, p<.001$; (c)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F(6, 508)=3.51, p<.01$; (d) 공격행동 척도, $F(6, 522)=3.97, p<.001$; (e) 경제적 갈등 척도, $F(6, 517)=3.59, p<.01$; (f) 성적 불만족 척도, $F(6, 506)=3.45, p<.01$; (g)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F(6, 514)=14.48, p<.001$; (h) 원가족 문제 척도, $F(6, 514)=2.39, p<.05$; (i)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F(6, 514)=2.24, p<.05$; (j) 자녀 불만족 척도, $F(6, 401)=2.46, p<.05$; (k) 자녀 양육 갈등 척도, $F(6, 404)=2.19, p<.05$. 사후검증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부나 생산직, 상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불만족 수준이 높았으며,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에서는 사무직

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보여 더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남성의 경우 비교적 적은 영역에서 직업에 따른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여성에게 있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가 전반적인 결혼 생활 영역에서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판 결혼 생활 만족도의 구성타당도

K-MSI 하위 척도간 상관관계

K-MSI 하위 척도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척도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하위 척도들이 재는 결혼 생활의 특정 영역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결혼 생활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관습적 반응 척도의 경우 결혼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관습적 반응경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거나 보고함을 말해준다. 한편,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는 다른 척도와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적이거나 관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적음을 말해준다.

K-MSI의 요인 분석

K-MSI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일관적 반응 척도를 제외한 13개 하위 척도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성분 분

표 7

전체집단의 K-MSI 척도들 간의 상관

	INC	CNV	GDS	AFC	PSC	AGG	TTO	FIN	SEX	ROR	FAM	CIL	DSC	CCR
척도	비일관적 반응척도	관습적 반응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문제척도	서적 문제척도	경제행동 척도	공유시간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	관습적 성역할 태도척도	적응 원가 문제척도	가족과의 갈등척도	배우자와의 불만족 척도	자녀양육 갈등척도
INC	-													
CNV	-.347**	-												
GDS	.275**	-.620**	-											
AFC	.252**	-.648**	.733**	-										
PSC	.286**	-.666**	.707**	.689**	-									
AGG	.227**	-.404**	.514**	.381**	.545**	-								
TTO	.152**	-.505**	.628**	.656**	.547**	.301**	-							
FIN	.271**	-.456**	.605**	.484**	.567**	.442**	.483**	-						
SEX	.218**	-.399**	.540**	.532**	.490**	.232**	.457**	.379**	-					
ROR	.045	-.082*	.011	-.034	-.111**	-.041	-.038	-.066*	-.090**	-				
FAM	.188**	-.190**	.383**	.282**	.270**	.164**	.266**	.306**	.258**	-.050	-			
CIL	.214**	-.393**	.532**	.454**	.526**	.360**	.322**	-.426**	.370**	-.097**	.155**	-		
DSC	.165**	-.448**	.548**	.549**	.505**	.342**	.459**	.399**	.380**	.019	.271**	.351**	-	
CCR	.103**	-.246**	.356**	.365**	.313**	.149**	.336**	.252**	.335**	-.113**	.270**	.227**	.541**	-

주. n=998

* $p < .05$. ** $p < .01$.

종합 논의

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하였으며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효 결정을 위해 스크리검사, 평행선분석, Velicer의 MAP(Minimum Average Partial) 방법을 이용하였다(이순복, 1995). 그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세 개가 추출되었으나, 스크리검사에서 1요인(고유치: 5.64)과 2요인(고유치: 1.72)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MAP 방식과 평행선분석에서 모두 1개의 주성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1주성분이 전체변량의 43.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용적으로 단일 요인 구조를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었다(Hattie, 1985). 단일요인에 대한 각 하위 척도의 요인부하량은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가 .08로 가장 낮았고, 원가족 문제 척도와 자녀 불만족 척도가 각각 .31과 .35이었고, 나머지 다른 하위 척도들의 요인부하량은 .61에서 .8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 단일요인은 결혼 생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만족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K-MSI의 요인분석 결과

척 도	요인부하량 communality	
관습적 반응 척도	.7364	.5423
전반적 불만족 척도	.8839	.7813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8467	.7168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8563	.7333
공격 행동 척도	.6101	.3723
공유시간 갈등 척도	.7384	.5453
경제적 갈등 척도	.7138	.5096
성적 불만족 척도	.6213	.3860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0846	.0072
원가족 문제 척도	.3081	.0949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6224	.3874
자녀 불만족 척도	.3534	.1249
자녀 양육 갈등 척도	.6613	.4373
설명변량(%)	43.37	

주. n=998.

현재 한국사회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결혼 생활의 안정성 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 생활의 갈등과 문제점으로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함께 문제영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를 여러 하위 척도를 사용해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모든 하위 척도가 비교적 짧은 문항 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내적 일치도 계수를 보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를 연구나 임상장면에서 사용할 때 전체 검사 뿐 아니라 하위 척도로도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에 성차가 있을 뿐 아니라 연령이나 학력 등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들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남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 부부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현숙(1996), 유영주(1979)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리 나라 남성들은 관습적 반응 척도와 성적 불만족 척도 점수가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한국 남성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표면적으로 결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우리 나라 남성들이 부부관계에서 얻는 성적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는 대체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성적 불만족 척도와 원가족 문제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에서 부분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불만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 불만족 척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결혼 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재 나이가 많은 연령층의 결혼 생활이 부부 중심적이기 보다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한편 원가족 문제나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에서는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불만족이 더 증가하지 않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원가족 문제나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변화가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가 전반적 불만족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인수와 유영주(1986) 연구에서 남녀를 합쳐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결혼 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정현숙(1997)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결혼 만족도는 결혼기간이 16-20년에 가장 낮으나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이나, 아내의 결혼 만족도는 결혼기간이 6년이 지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부분적으로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감소하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노년층에서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나라 여성에게서 결혼기간의 증가나 연령의 증가가 왜 결혼 만족도의 감소를 가져오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우리 나라 부부들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결과는 유영주(1979), 이인수·유영주(1986)와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남성의 결혼 만족도는 가계수입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에게는 가계수입이 낮

을 때 전반적 불만족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준다.

남녀의 직업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업주부, 생산직, 상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불만족의 수준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의 여성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태도 척도에서는 사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더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직업과 부인의 직업 유무가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인의 성역할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영표(1989)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우리 나라에도 직업을 가지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및 매개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가 단일차원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차원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먼저 결혼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하위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결혼 만족도가 결혼 생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yder(1981)에서 MSI를 요인분석하여 네 요인을 추출한 결과나 Snyder (1997)에서 세 요인을 추출한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다. 그러나 이들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첫 번째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혼 만족도를 다차원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보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현숙(1979)이나 이인수·유영주(1986)와 같이 결혼 만족도를 일반적인 만족요인인 단일요인으로 보는 것이 내용적으로 더 타당하리라고 볼 수 있다. 하위 척도별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단일요인 속에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또는 문제해결적 의사소통문제, 공격행동, 공유시간 갈등,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 양육 갈등 등 다양한 요소

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합쳐서 일반적인 결혼 만족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결혼 만족도의 하위 척도로 포함시킨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도 단일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여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한편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는 단일요인에 부하량이 적고 다른 하위 척도와의 상관도 낮아 결혼 만족도를 이루는 한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준화 연구에 우리 나라 부부들의 대표적 표집을 사용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좀 더 대표적인 표집을 사용하는 표준화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다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는 결혼 만족도를 여러 하위 척도를 사용해 평가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나 임상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결혼 생활의 문제점을 여러 영역에서 다각도로 평가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득성(1986).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 (I).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2, 55-73.
- 김충미(1992). 며느리 입장에서 본 고부갈등의 원인에 입각한 사회사업적 개입 방안.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은여 · 권정혜(1997). 결혼 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II.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 문영표(1989). 도시 부부의 성역할 태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은(1983).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도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2), 139-150.
- 유영주(1979). 한국도시가족부부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2, 1-13.
- 이민식 · 김중술(1995). 부부 적응 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5 연차대회 학술논문집, 291-299.
- 이순목(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이인수 · 유영주(1986). 결혼 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4, 1-14.
- 정현숙(1996). 도시 부부의 결혼 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51-60.
- 정현숙(1997). 결혼 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 191-204.
- 정혜정 · 서경숙(1993). 고부갈등에 있어서 자기통제력, 탓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19-133.
- Bem, S. L., Martyna, W., & Watson, C. (1976). Sex typing and androgyny: Further exploration of the expressive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016-1023.
- Glick, B. R., & Gross, S. J. (1975).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conflict: A critical evaluation of current research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505-512.
- Gruamn, A. S. & Kniskern, D. P. (198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Hattie, J. (1985). Methodology review: Assessing unidimensionality of tests and item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9, 139-164.
- Jacobson, N. & Ma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Jacobson, N. S. (1992). Behavioral couple therapy: A new beginning. *Behavior Therapy*, 23, 493-506.
 - Nichols, W. C. (1988). *Marital Therapy: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Nunnally, J. C. & Bernstein, I. H.(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New York: McGrawhill.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 Eun-Yoe & Kwon, Jung-Hye (1997). The role of self-esteem and marital relationship on women's depression I.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2), 29-40.
 - Satir, V. (1964).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 53, 567-572.
 - Shrod, J. & Shrod, P. (1995). *Couple Communication*. Denver: Couple Communication, INC.
 - Shaw, J. S.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and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45-153.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nyder, D. K.(1981).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Snyder, D. K.(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MSI-R)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Spanier, G. B.(1972). Further evidence on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Scale and other measures of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403-404.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원고접수일 1999. 1. 7
수정원고접수일 1999. 5. 28
게재결정일 1999. 6. 1 ■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won, Jung-Hye

Choi, Kyu-Mahn

Korea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K-MSI) consists of two validity scales(Inconsistency and Conventionalization) and one global affective scale(Global Distress), and eleven additional scales measuring specific dimensions of relationship distress(Affective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ggression, Time Together, Disagreement About Finances, Sexual Dissatisfaction, Role Orientation, Family History of Distress, Conflict With In-Laws,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Conflict Over Child Rearing). The Conflict With In-Laws scale was developed to assess conflicts in relationship with in-laws. Two preliminary studies for selecting items by item analysis were executed and the final 160 items were administered to 440 married men, 540 married women residing in Seoul and Kyung-gi area for standardization.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family income and job were examined. Coefficients of internal consistency of individual scales ranged from .71 to .92 and the coefficients of temporal stability(test-retest) ranged from .70 to .96. Results of factor analysis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dicated the existence of single factor, explaining 43.37 percent of total variance. Overall, results suggested a high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Implications for use of the instrument both as a clinical tool and a research instrument are discussed.